

與·野 잠룡, 지역뉴딜 청사진 대결

6명 광역단체, 지역사업계획 소개 그린뉴딜·액화수소·공공배달 등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는 여야 잠룡들의 '청사진 대결'로 요약된다.

여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야권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한자리에서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계획을 선보이면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판 뉴딜 전략 회의에서 지역 균형 발전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17개 시·도지사를 청와대에 초청했고, 이 가운데 6명의 광역단체장은 지역별 사업 계획을 포함한 청사진에 대해 소개했다.

야권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먼저 "그린 뉴딜을 제주는 적극 지지한다"며 "제주는 지난 10년간 203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많은 노력을 이 해 왔다. 지난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는 앞으로 10년 대한민국의 그린 뉴딜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가 청년취·창업과 소득 지원을 결합해 만든 '더큰내일센터'를 소개하며 "이를 전국으로 확산해 미래 혁신 인재, 대한민국 인재 10만명을 양성하는 계획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그린 뉴딜 선도를 위한 '전력 거래 자유화' 정책도 제안했다.



김태년(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원희룡 제주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회의에는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뉴스스

원 지사는 또 "제주는 이미 국제적으로 그린 뉴딜의 프런티어로 인정을 받고 있다"며 "2023년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제주에서 유치하고자 한다. 중앙정부에서도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대목에서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데이터를 도민 품으로'라는 주제로 공공배달업 사업을 소개했다. 이 지사는 공공배달업 사업을 두고 "핵심은 데이터 경제의 혜택이 데이터의 생산자, 경제 주체인 도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지사는 문 대통령이 과거 '디지털 격차를 줄여 포용적 디지털 경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발언한 대목을 인용하며 "이 때문에 경기도는 도민 참여를 통해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

성하기 위해 디지털 SOC 구축의 일환으로 공공배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권 잠룡 중 한 명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동남권 메가시티'와 '권역별 메가시티'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광역대중교통망 구축과 유연한 권역별 발전 전략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생태계를 이대로 가져가면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이제는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한국판 뉴딜을 기존의 중앙 주도에서 지역 주도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역별 발전 전략을 만들기 위해 '동남권 광역철도망 구축'이 전제라고 강조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서울시, 내달까지 '도시재생기업' 공모

서울시는 내달 6일까지 도시재생기업 8곳을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시재생기업은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해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일종의 도시재생 사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일자리 창출, 지역 인프라 관리, 주거지 관리 등 도시재생과 연계된 사업을 한다.

서울시는 사업 목적과 내용에 따라 내년부터 3년간 최대 8000만원(지역사업형)~2억8700만원(지역관리형)의 초

기자금 지원을 한다. 회계·마케팅·홍보·법률 등 10개 분야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지역, 우리동네 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내 소재한 기업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사업계획과 기업 역량·지역기여도 등을 평가해 오는 12월 8곳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도시재생기업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hjk1@

고양도시관리공사, 경인권 체육대학과 협약

청년 일자리창출 전담TF 인력 구성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별도의 전담TF 인력을 구성하여 경인권(중부대, 인천대, 경민대) 체육대학과 산학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동 업무협약은 지역 대학과 산학 협력을 통해 공사가 운영 중인 체육시설 강사 인력의 원활한 관리와 동시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현장실습 및 수업장소 제공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회원들에게는 보다 전문화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

공사에서는 코로나-19 등으로 체육 시설 이용제한 완화 시 인력 수급의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각 체육대학을 방문하며 관계자들을 수차례 만나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홍중 사장은 "현장 실습 기회 제공을 통한 우수 지도자 양성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공사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문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대학과 상생하여 산학 협력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고양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새단장' 지원

민간자원·재능기부

고양시는 민간자원 및 재능기부 등을 활용해 저소득 소외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2020년도 'G-하우징 사업'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G-하우징'은 관내 아파트 시공업체의 민간자원 및 재능기부를 통해 중위소득 70%이하 차상위,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집수리 사업이다.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제도권 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방, 거실, 화장실, 부엌 등 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한 부분에 대해 개·보수 작업 등을 실행한다.

시는 올해 주거 환경이 열악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등 8가구 주택을 선정하고 ㈜중흥건설(대표 백승권)과 ㈜지



공사 후 거실사진

에스건설(대표 임병용), 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회장 이상헌)의 지원과 재능기부 등 봉사를 통해 도배, 장판, 싱크대, 화장실, 창호 등 내부 집수리를 실시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망사마스크' 입자차단을 평균 17% 불과

서울시, 망사마스크 착용시 과태료 KF-AD, 분진포집효율 평균 75%

호흡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일부 사람들이 쓰는 '망사마스크'의 입자차단율이 평균 17%에 불과하다는 서울시 성능시험 결과가 나왔다.

망사마스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서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가 아니어서, 이를 착용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의약외품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10개 품목과 공산품 망사마스크 7개 품목의 입자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분진포집효율시험'과 숨쉬기 편한 정도를 평가하는 '안면부흡기저항



망사마스크. /서울시

시험'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시험은 지난달 7~25일 실시됐다.

시험결과망사마스크는 안면부흡기저항이 평균 3파스칼(Pa)로 호흡이 매

우 편하지만, 분진포집효율 시험결과가 평균 17%에 불과해 입자차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KF-AD 마스크 10개 품목의 분진포집효율은 평균 75%로 나타났으며, 그 중 5개 품목은 80% 이상이였다. 또 KF-AD 마스크의 안면부흡기저항은 평균 16Pa로, KF80 등급 보건용 마스크의 기준인 '60 Pa 이하'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분진포집효율시험'은 마스크가 작은 입자를 걸러주는 비율을 측정하는 것으로, 염화나트륨(NaCl)을 활용해 평균 0.6µm의 에어로졸 입자를 생성해 시험한다. '안면부흡기저항시험'은 사람이 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 내부가 받는 저항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김현정 기자

평택시, 코로나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평택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기존 복지제도 또는 정부의 긴급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

득감소 25%이상,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5천만 원 이하인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지원은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대상자 등 기존 복지제도나 정부가 추진한 '코로나19 긴급지원'을 받은 가

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은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평택(경기)=이보현 기자 bhlee7777@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39 | 해질 / 17:56

10월 14일 (수)
음력 : 8월 28일

수도권 날씨
11 ~ 17°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 연천 7/16
- 동두천 8/17
- 가평 7/17
- 파주 7/16
- 서울 11/17
- 양평 9/17
- 인천 11/16
- 수원 11/16
- 용인 11/16
- 평택 9/17
- 백령도 11/13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